

200자 안내

政治構造의 分析

데이빗 이스튼 지음 / 이용필 옮김

정치구조를 일상적으로 명백히 알려진 것과 정치체계를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의 두 종류로 나눠 정치구조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했다. 또한 비교정치학에서 체제구조와 관련해 현재의 경험적 연구가 지난 결함들을 지적하는 한편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인 폴란차스의 연구에도 비판적 분석을 보여준다.

인간사랑 / A5신 / 514면 / 7000원

이별의 뒷모습

페트리시아 매튜우스 지음 / 유은진 옮김

국내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미국작가의 장편소설로 마리안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 포경선의 생활을 주인공의 일기를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소설은 필립이라는 조난자를 구출한 여주인공이 뜻밖의 살인을 하게 되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아담이라는 구원자를 만나 겪게 되는 이야기가 줄거리다.

미래세대 / A5신 / 398면 / 4500원

韓國姓氏의 뿌리를 찾아서

강경구 지음

고려 초기 이상 소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姓氏의 기원을 서기 전까지 소급하여 고대사에 있어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고대 성씨제도연구에 '작업가설'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각 성씨들의 시조설화를 「청학집」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저자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文化柳氏始祖說話'를 분석했다.

기린원 / A5신 / 314면 / 7000원

자유

김대수 지음

6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8년 동안 복역하면서 틈틈이 썼던 글들을 모았다. 집필 중 누구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던 저자가 자연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자유의 개념 규정에서부터 자유실천의 문제와 그 제약요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연관성에 이르기까지 자

유의 실제적 측면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햇빛출판사 / A5신 / 238면 / 4000원

사랑, 분노 그리고

쟈넷 데일리 지음 / 정성호 옮김

연애소설로 정평있는 미국작가의 대표작 「사랑은 천둥소리를 타고」(Ride the Thunder)의 번역본. 부호의 말괄량이 딸 조르다나와 어릴 때 양친을 잃고 대기업의 후계자로 지목된 브리그와의 성애를 통한 사랑의 성장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현재 17개국에서 출판된 대중연애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동화문학사 / A5신 / 370면 / 4800원

조용한 미국인

그레이엄 그린 지음 / 이의일 옮김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과 사랑을 그리면서, 세계각국에 파견된 '조용한 미국인'으로 불렸던 경제공관원들과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영국작가의 소설. 전쟁의 참화를 지나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자유와 정의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전쟁의 폐해를 되새겨보게 한다.

대성 / A5신 / 310면 / 4000원

아침햇살로 다가드는 행복

오하시 시즈코 지음 / 김지은 옮김

일본의 작가이자 여성잡지「생활수첩」의 발행인으로 있는 저자가 잡지의 고정란인 '멋진 당신에게'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책. 요리, 쇼핑, 대화, 여행 등 흔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기 쉬운 여성의 일상사들을 월별로 서술하면서 그 사소한 것들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에디터 / A5신 / 298면 / 4000원

추억의 노래

김주영 외 지음

김수영, 김호운, 문형렬, 박덕규, 배철호, 서동훈, 신상웅, 이윤호, 정종명, 정호승, 홍상화 등 작가 12인의 데뷔작이나 초기 발표작 또는 미공개 습작 등을 한자리에 모았다.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고뇌하고 방황하기도 했던 작가들의 젊은 시절의 사랑과 비애, 현실인식 등이 작가들 나름의 독특한 감각과 감성으로 그려져 있다.

대림기획 / A5신 / 286면 / 4200원

인공지능

니시가끼 토오루 지음 / 박종근 외 옮김

컴퓨터와 인접 기술분야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어떤 철학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한 책. AI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분석하는 준비과정

으로서의 전문가 시스템 등 AI의 기본 기술을 약술하고 있는 이 책은 또 인공지능이 컴퓨터 문학장르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인간사랑 / A5신 / 290면 / 4500원

교토 25時

최무영 지음

일본 교토에 MK라는 택시회사를 차려 서비스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끝내 재벌 총수가 된 재일동포 유봉식씨의 삶을 추적한 장편실화소설. '고맙습니다 운동'을 벌이면서 굴지의 택시회사를 운영하며 총 2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금강산·백두산 개발 프로젝트를 한국정부에 제출한 유봉식씨의 사업가로서의 집념과 인생관이 담겨 있다.

열림원 / A5신 / 318면 / 4500원

大東夷 5

박문기 지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태고사를 문헌과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소설로 최근 5권을 출간, 완간됐다. 홍익인간의 이념과 大弓의 大武精神으로 이 땅의 법을 세운 환인으로부터 복희, 신농, 치우, 환검에 이르기까지 선대들의 삶의 흔적이 충분한 사적자료와 역사를 보는 저자의 넓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 장쾌하게 되살려져 있다.

정신세계사 / A5신 / 300면 / 4000원

우리는 이런 상사를 만나고 싶다

윌리엄 워더 2세 지음 / 김만기 옮김

부서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서의 팀워크를 유지하는 문제, 부원들의 사기를 양양시키는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기업경영서. 특히 부하직원의 균무시 심리상태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명확하게 전개 시킨 이 책은 부서내의 갈등을 극복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출판사 / A5신 / 284면 / 4000원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김지일 지음

1964년 평양에서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과 소련유학을 거친 북한의 엘리트로서 유학중 만난 러시아여인 알라와의 사랑을 위해 자유를 찾아 탈출, 한국에서 보금자리를 꾸민 김지일의 러시아 탈출기를 수기형식으로 꾸몄다. 엘리트로서 보장된 장래를 버리면서 소련여대생 알라와의 체제를 초월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전해진다.

고려원 / A5신 / 320면 / 4500원

새 지평선에 서서

金在淳 지음

13대 국회의장을 지냈던 저자가 그동안 여

러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했던 정치칼럼과 에세이를 모아 엮었다. 70년대 이후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대한 진단과 오랜 세월 정계에 몸담으며 체험한 선배정치가로서의 조언, 현대한국 정치의 향방에 관한 지론 등이 100여편의 글 속에 담겨 있다.

샘터 / A5신 / 320면 / 4500원

중국의 도교

요시오카 요시토요 지음 / 최준식 옮김

종교적 전통이 깊은 중국도교의 실상과 철학적 토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입문서. 중국인의 인생관을 만들어낸 대자연과 도교발생의 근원과의 관계를 살피고 「태평경」「포박자」「입교십오론」「보권」 등 도교사상의 핵심을 시대별로 고찰하며, 특히 중국도교의 최근 사정과 북경 백운관 도사들의 생활을 그대로 묘사하는 등 현장보고도 겹쳐져 있다. 관련사진도 풍부히 수록했다.

민족사 / A5신 / 296면 / 4800원

아르따모노프가의 사업

막심 고리끼 지음 / 장지연 옮김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는 고리끼가 건강의 악화로 요양을 떠난 이탈리아에서 썼던 말년 작품. 그동안 다른 작품에서는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르주아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아르따모노프 일가의 몇십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 러시아부르주아의 생성·발전·소멸의 과정을 짚증하게 그리고 있다.

아침 / A5신 / 376면 / 5500원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모두 내것이다

피터 튜라 외 지음 / 박영수 옮김

기업가, 교육자,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유발 강사 15명의 각종 세미나와 회사연수교육 강좌의 내용을 묶은 책.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간승리의 사례와 함께 창의력 계발,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시간관리, 경청법, 보디랭귀지 등 성공에 이르는 다양한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승 / A5신 / 282면 / 4500원

쓰러지는 은행 일어서는 은행

SIM 비즈니스 컨설팅 염음

금융 자유화, 자율화, 국제화를 축으로 한 금융경영혁명이 은행 경영환경을 격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해설하는 한편 구미 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금융혁명이 낳을 수 있을 결과들을 예시하고 각국 은행들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금융계가 나가야 할

방향성과 전략을 세부적으로 모색, 제시하고 있다.

현대정보문화사 / A5신 / 272면 / 5500원

소설 김옥균

박태민 지음

갑신정변의 핵심인물인 김옥균과 그 주변인 물들을 통해 갑신정변의 성공과 실패를 오늘에 되살려놓고 있는 실명 역사소설. 당시 역사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 입헌군주제 통치의 실상, 신분제의 폐지, 혁파개화 등의 주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한편 “김옥균은 친일파가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명쾌한 반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월서각 / A5신 / 각 316면 내외 / 각 4500원

인생은 결단이다

시어도어 루빈 지음 / 염재용 옮김

「절망 아닌 선택」으로 국내독자와 친숙한 저자가 절망을 뛰어넘어 인생의 성공비결을 일러주는 책이다. 사업에 관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결단의 순간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저자는 이러한 모든 결단의 배경에는 기본원리가 있다고 주장, 그 원리에 입각하여 ‘참되고 자유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아출판사 / A5신 / 208면 / 3800원

참회록

ST. 어거스틴 지음 / 오병학·김금선 옮김

높은 덕망과 불멸의 학식으로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어거스틴이 A.D. 396년에 집필한 「참회록」의 완역본. 전1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9권까지는 저자가 자기의 행적들을 성경의 정신에 조명시켜 고백한 것이며 10권은 주교 시절의 내면상태를, 나머지 2권은 성서에 관한 명상을 담고 있다. 현대인들이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드럽게 읽어갈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 특징.

예찬사 / A5신 / 320면 / 4000원

제임스 딘의 연인 피어 안젤리

마리엘라 리기니 지음 /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실 옮김

「에덴의 동쪽」 등의 영화에서 고독한 반항아역을 보여 전세계 영화팬들의 가슴에 고뇌하는 젊음의 초상을 남긴 영화배우 제임스 딘과 유명적인 만남으로 사랑을 나눴던 피어 안젤리의 이야기를 시나리오 작가인 저자가 엮어냈다. 역시 이탈리아 영화계에 떠오르는 샌별로 등장했던 피어 안젤리가 평생 제임스 딘과의 사랑을 안고 살아야 했던 슬픈 삶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다.

청담사 / A5신 / 352면 / 5000원

논문집

한국여성연구 2

[교육과 법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평등권의 개념과 남녀동권(윤후정) ▲사회복지 관련법과 여성(이혜경)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와 과제(조순경) ▲세법과 성평등(최광) ▲교육이념에 나타난 성의 구조(한명희) ▲초기 사회화와 성의 구조(이재연) ▲교사교육과 양성평등 ▲성역할연구의 양성적 시각(정진경)

청하 / A5신 / 260면 / 4200원

무크

사회비평 (제6호)

[특집] 다시보는 자본주의·그 동태와 모순

▲중심부 자본주의에서의 갈등과 타협(배영수) ▲사유재산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의 과제(박정순)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이채언)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동학(이영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관계(성경률)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임혁백) ▲현대 자본주의의 조절과 국가(김호기) ▲시장의 해체, 시장의 반격(김병국)

(오늘의 쟁점)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세균) ▲민중민주주의의 조건과 방향(최장집) ▲토론(권태준·백낙청·유팔무)
(특별기획) 북한 젊은이들과의 대화 ▲무오류의 오류 현장(유의영) ▲저성장기 일본 노동 조합의 기능양태(김훈) ▲민중주체 민주주의와 민중시대의 변혁이론(장기표)

나남 / A5신 / 486면 / 5800원

바른글방 소개의 글 21

이 시대의 책 이야기 5

설날 아침 스편집장님의 꿈 이야기

설날 아침,

평양지사로 전근발령이 나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 벗어나 출판사 스편집장님은

가슴벅차게 창문을 채우는 아침햇살을 바라보며

곰곰 생각에 잠깁니다.

새해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꿈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날 남쪽의 누군가 북쪽의 누군가에게
애정을 가득 담아 선물할 만한
그런 값진 책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설날 아침,

〈바른글방〉과 〈미필적 고의〉 역시

스편집장님의 바램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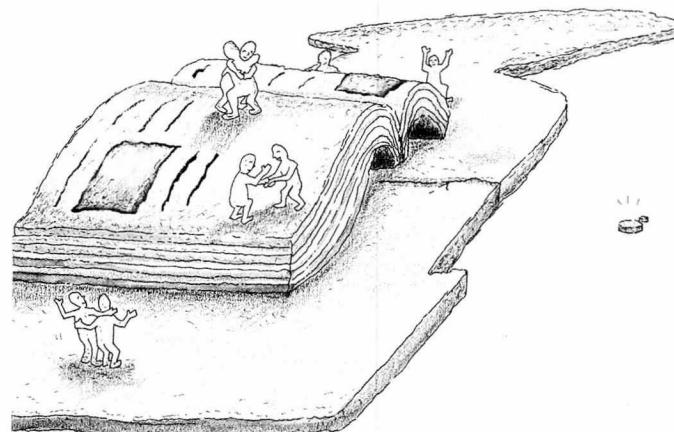
우리 모두의 꿈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갈피마다에 심어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새해에도 〈바른글방〉과 〈미필적 고의〉에서

일하는 서툰한 명의 쟁이들은

전산조판에서 본문 교열·교정, 표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출판에 관한 모든 일을 거뜬히 해낼 것입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 · 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윤문 · 교열 · 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 · 아동물 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 · 출력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 · 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출·판·전·문·집·단

바른
글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별관 3층
전화 325-5366(代)
325-5363~5
325-6484~5
팩시 325-5362

디·자·인·전·문·집·단
미필
적 고의